

조선사vs철강사 '눈치싸움' 후판가격, 1년 반만에 동결되나

3회 연속 후판가 올라…2년 전 비해 2배
조선사 LNG 수주 급등, 이익 개선 도모
철강업계, 수요 급증 따른 인상 요인 충분
신중한 눈치싸움 '동결' 가능성 커져



국내 조선사와 철강사들이 올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두께 6mm 이상 철판을 가리키는 후판은 선박 한 척 건조 비용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선사들 입장에서 가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후판 가격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둔화, 도쿄 하계올림픽 1년 연기에 따른 일본산 제품 저가 판매 등으로 풍당 60만원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철광석 및 철재율 연료단 가격 급등으로 반기마다 10~40만원씩 올랐다.

올 상반기 후판 가격은 120~130만원 안팎으로 2년 전과 비교해 두 배나 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선사들은 LNG선 등 해외 선사로부터 고가의 선박 수주를 받고도 이익 내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수년 전 수주할 때보다 후판 가 예상을 뛰어넘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올 1분기 1조 4838억원 매출액을 올렸으나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손실총당금을 800억원 가량 감면하면서 영업순손실이 949억 원으로 확대되는 계기로 이어졌다.

2분기에도 후판 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삼성중공

업의 경우, 500억원 안팎의 공사손실총당금 추가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의 예측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당초 국내 조선사들이 올 해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처럼 전망도 있었으나 공사손실총당금이 커지면서 불가능하게 됐다"며 "LNG선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등 Q선박방)는 걱정 없다. 후판 가격이 내려가면 P(가격)가 안정되면서 내

년 혹은 2024년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삼성중공업은 22일 바우다와 아프리카 선주로부터 LNG선 12척과 2척을 각각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이 3조 9000억원으로 단일 선박 건조 규모로 국내 조선업계에 최다를 기록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6척을 1조 6585억원, 한국조선해양이 LNG선 6척을 1조

727억원에 각각 수주하는 등 이달 들어 국내 조

선사 '빅3'가 LNG선 26척을 주문받아 새로운 호황을 기약했다. 반면 철강업계 판단은 조선사와 달라, 후판가에 대한 양쪽 눈치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철강사들은 수주가 늘어난 만큼 후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을 당장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강사와 연료단 가격이 들어려가고 있으나 수요 급증에 따른 후판가 인상 요인 아직 충분하다는 얘기다. 국내 조선업계가 코로나19 이전까지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철강사들이 후판 생산보다 전기차 시장을 대비한 차량용 강판 생산에 신경겠다는 정도

역설하고 있다.

조선사와 철강사 양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

치고 있다는 뜻인데, 다만 접점을 찾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조선업계는 최

소 후판가 4회 연속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

강업계 주변에서도 당분간 한 상태 유지를 마지

노선으로 잡겠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어 후판가

동결으로 가닥침 확률이 높다. 증권가 역시 하

반기 후판가 인상 여부에 소폭 인하를 전제로 각 조

선사 영업순실 측수를 내다보고 있다. 정동의 KB

증권 연구원은 "조선사들이 후반기엔 후판 가격이 안정세를 탈 것으로 가정하는 상황"이라고 밝

혔다.

김현기자 propagand@orbiz.co.kr

'금리 경쟁력 제고' 나선 케이뱅크, IPO 속도 낼까

여수신 금리 조정으로 금리 경쟁력 제고

업계, 외형 확대 연내 기업공개 박차 전망
케이뱅크 "2023년 목표로 IPO 준비"

'스'의 금리를 0.4%포인트 인상했으며, 최대 연 5.0%를 벌 수 있는 '코드K 자유적금'도 출시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업계 최초로 '금리보장서비스'를 도입해 금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한 예금 상품의 금리를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리를 예금 가입일부터 적용해주는 서비스다.

케이뱅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예금금리 확대에 따른 이익구조보다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케이뱅크, 이달 중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것'

양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케이뱅크는 2023년을 목표로 IPO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이어 2월에는 NH 투자증권·씨티증권·JP모건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 현재는 상장 주관사와 IPO를 위한 내부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 금리 경쟁력 강화·여신금리 '내리고' 수신금리 '올리고'

최근 케이뱅크는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예금과 적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21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일반·청년)의 금리를 최대 연 0.41%포인트 인상했다. 또한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를 0.35~0.36%포인트 낮췄으며, 변동금리 중 금융채 연동금리(6개월) 상품의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했다. 더불어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반전세와 연 0.41%포인트, 청년전세는 0.32%포인트 낮췄다.

케이뱅크는 지난 2월,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여신상품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상성이 맞아 이에 부

답을 느끼는 기존 출자들의 '고정금리 같아타기' 수요에 맞춰 월금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신용대출과 신용대출플러스, 마이너스통장 등, 3종의 대출 상품의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인하했으며,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도 모든 신용등급에 대해 0.1%포인트 내렸다.

반면 수신상품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는 공격적 경영에 나서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2월 예금금리 및 헬스케어 서비스의 수신상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했다. 이어 5월에는 정기예금의 금리를 기간별로 최대 연 0.7%포인트 인상하며 은행권 최초로 정기예금 금리 연 3% 시대를 열었다.

이달에는 자동 목돈 모으기 상품인 '웰린지'

케이뱅크는 지난 2월, 은행은 '올해는 은행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 유입 및 활동성 강화를 통해 풀惫했으며 진화하는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디지털금융플랫폼 도약에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성공적인 IPO를 위한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최근 코스피 시장이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상장 시기를 앞당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IPO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성노 기자 sungr51@orbiz.co.kr

"암보험 하나 있는데, 뇌출혈도 걱정되고 "

뇌출혈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2018년 금융감독원·국민보험협회 공동조사(2019)

"암치료비는 나오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고 "

암 진단 후 실직 또는 휴직 46.6%
2013 국립암센터(국가암센터) 의료비 지원 사업 인증도 조사결과

"사망원인 2위 질병은 대비조차 안했고 "

대한민국 사망원인 2위 삼정질환
2017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8)

내 보험! 보장비틀 걱정없이!

꼭 필요한 보장을 놓고는 안 돼요
큰 병의 치료비도 특약으로 생활비까지도 걱정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보면 보장을 꼭 꼽아 드립니다

부비당
백세시대 (강신형)
꼭하니 건강보험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임에 걸친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내 제재)

나이가
많아도
(60 ~ 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뇌출혈
진단비

급성신경색
진단비

암생활비
(특약)

기입고객 전원, <AIA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 별도 안내장 참고

건강보험 꼭 하나 들어야 한다면 전화주세요
080-855-3535

**K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금리 인상기에 예금금리 확대에 따른 은행권의 이익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가 공격적인 여수신 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